

무수히

흐어지는

순간들

전진표 Jun Jinpyo

구성.연출 전진모

출연 강장군, 김솔빈, 유지수, 정지인

사운드 목소

조명 서가영

"<무수히 흐어지는 순간들>은, 연극연출인 전진모가 전진표 작가의 개인전 <무수히 흐어지는 순간들>에서의 퍼포먼스를 위해 구성/집필하였으며, 2025년 5월에 초연되었다. <무수히 흐어지는 순간들>의 텍스트는 실제 공연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 무수히 흩어지는 순간들

사라진 중심 위에 남긴 말들,  
말들은 흩어지고,  
공간만이, 그림만이  
말의 형태를 기억한다.

\*ABC의 대사는, 각각  
좌측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로 정리한다.

## 1. (흩뿌려진 단어들)

[음향] 우퍼음과 같이 웅웅거리는 소리(간헐적으로)

사람들, 전시를 보며 공간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이. 간헐적으로,  
공간에 낮고 깊은 소리가 울린다.

ABC, 길게 간격을 갖고 늘어선 그림 바깥쪽에 흩어져 서있다.

소리의 진동이 밀려드는 사이, 인물들 천천히 그림 사이를 지나 직선 이동을 시작한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움직임. 움직임 사이로 빛이 슬몃 변한다.

[음향] 우퍼음, 서서히 사라진다.

[조명]

ABC가 서로 다른 위치에 멈춰서는 것과 거의 동시에,

공간의 빛이 다시 변한다.

[조명]

[음향] out

A, B, C

각각 그림들 사이를 관통하는 직선의 길을 걸으며,  
각자의 순간을 발견하며, 또는 각자의 순간에 멈추어 서며,

흐릿한

스며든

덧, 대어진

접힌

고여있는

(몇 걸음 더) 순환하는

(멈춘 채)부서지거나,

지워진,  
(자신의 걸음으로부터)  
경로

(멈춰선 채 흔들리다간)

끝자락에

흔적없는

밀려난

(다시 걸음을 걷는다, 한 발짝)  
새어나오는

무력한  
(멈추어 서며)  
경계

(슬몫 움직이며)  
퍼지는

(다시 반대편으로 걸으며)  
반복되는

사이

닿지 않는

(천천히) 들떠 있는

잠시 정적

안개가,  
안쪽으로 접히고,

그림은  
멈췄고,  
말이 없었고,

흐릿한

덧대어진

스며든

내가 있었다는 걸

(B와 거의 동시에, 그러나 조금 천천히)  
내가 있었다는 걸

까먹었지.

(주위를 살피며)  
누가,  
나 대신 걷고 있었는데,

스며든

반복되는

접힌

끊어지는

내가,  
(정적, AB 모두 C를 바라보면)  
돌아와 있었어.

사이  
ABC, 각자 다른 곳을 멀게 바라본다.

(멈춘 채)  
순환하는

퍼지는

(아직 멈춘 채)  
흔적 없는

부서진

넘치는

아무도  
멈췄다는 걸 몰랐지.

움직임이 아니라,

내가  
빠져나온 흔적일지도.

모두 침묵.  
세 사람 모두 멈춰있다.  
말과 움직임의 궤적만 남는다.

## 2. (머물기, 조합)

ABC, 의자를 가져다가 공간 사이사이에 놓고  
자리에 앉아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

(의자를 갖다 놓으며)  
덧대어진 말들이 서로  
겹쳐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빛이 조금 흔들렸다.

(그림 사이 그려나  
다소 바깥의 공간에, 의자를 갖다 놓으며)  
가까운 벽면에서  
멈춘 흔적이 서서히 번져 나온다.

사라진 것과 남은 것의 차이를  
나는  
몰랐다.

(A와 B 사이 어디쯤,  
그림들 사이 공간에 다시 의자를 가져다 놓으며)  
고인 틈,  
순환하는 것들.

[음향] 아이들 웃으며 뛰어가는 소리(멀게 지나가는 소리)

손은, 아무데도 닿지 않았다. /

/(급하지 않게) 접힌 공간의  
사이,  
포개어지며  
또는 멀어져가며,

스며들기보다,  
그저 흐릿하게 잠긴

내 걸음 뒤로 천천히 접혀오는  
[음향] 바람,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ABC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와 거리를 조절하며,

안, 혹은 밖으로

아래에서,  
또는 위에서

가까이  
혹은 멀게

같이,  
아주 잠시

함께 \*

\*서로

앞

혹은 뒤  
에서, (으)로, 를

어딘가,

여기에

같이,  
있었다,는  
말이

(조금 빠르게)  
따로 말해도

이어진 듯,  
남는다.

옆에 있었지만,

기억엔 없었다.

말했었나?

(사이)

말했던가?

ABC 다시 그림 사이를 거닐며

아무도

[음향] 발걸음 소리, 구둣발 (보통속도 또는 천천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은,

움직이지 않았다.

말보다 앞선 움직임,  
움직임보다 느린 감각.

[음향] 멀리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ABC 모두들 한 방향을 바라본다.

[음향] 창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ABC, 모두 다른 방향을 함께 바라본다.

옆에

따로

같이

다시

멈춘다.

ABC, 모두 멈추어 선다.

의자와 적당히 떨어진 몸들,  
그림 사이의 공간들,

3.

(보이지 않는 말)

ABC, 그림들의 뒷편에서

경계는, 늘

사이  
덧대어진 겹,  
겹쳐진 틈의

이미지

감각 이전의 궤적,

이따금씩 연결되는 듯,  
그러나 이내  
흩어지는,

하나로,  
포착되지 않는

한 장면으로,  
파악되지 않는

그림 안,

그림 밖  
(그림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어긋난 말,  
불연속의,  
편린

스치고,  
훑은

만들어진,  
(또는) 흩어진

흐르는,

멈춘

멈추지 않는,

무수히 흩어지는,

사이

시간이 조금씩,  
밀려나간다.

공간은 한 걸음씩  
늦게 말한다.

눈앞의 광경보다  
먼저 도착하는,  
(감각, 무언가 만져질 듯)

사이

닿기 전에 사라지는,

기억은, -

- 걸음을

-따라잡지 못하고,

같은 풍경이,  
조금씩  
다르게 지나간다.

ABC, 각자 다른 방향으로,  
그림들을 벗어나며  
들릴 듯 말듯.

반복,

분절

(모두 걸음을 멈추며, 그림을 다시 돌아보며)

또 다른

사이

어긋난 말,

접힌 문장,

불투명한 말의

틈

(모두 걸음을 멈추고, 바깥으로 시선을 둔 채)

하나의 중심이 무수히 흩어지는 순간들.

[조명] 명멸하다 사라진다.

끝